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11일(화) 총 3매	
담당 부서	철 도 과	담 당 자	• 철도관리팀장 성정은 ☎440-3836 • 담당자 박상태 ☎440-3837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수인선 학익역(가칭) 신설사업 사업비 납부 완료
- (주)디씨알이, 사업비 등 491억 원 완납...시, 30년 영업손실금 보증 확보도 -
- 올 하반기 기본·실시 설계 들어가 -

용현·학익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수인선 학익역(가칭) 신설사업이 사업비 등이 납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‘수인선 학익역(가칭) 신설사업’의 사업비 및 사업관리비인 491억 원을 용현·학익(1블록)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(주)디씨알이가 국가철도공단에 7월 10일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시는 학익역 운영 예상되는 30년간의 영업손실금(연 약 4억5천만 원)을 담보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도 (주)디씨알이로부터 확보했으며, (주)디씨알이는 2024년말까지 영업손실보전금 전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일시 납부할 예정이다.

위·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비 등 납부 완료를 비롯한 지급보증보험증권

이 확보됨에 따라, ‘수인선 학익역(가칭) 2단계 신설사업’은 오는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.

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“2018년 9월 1단계 사업 완료(지하 1·2층 본선 구조물 공사) 후 위·수탁 협약 주체, 사업비 및 영업손실보전금 납부 주체, 납부방법 등에 대해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(주)디씨알이간이건으로 2단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, 인천시 담당 공무원의 1년 6개월여 간의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로 4자 간 위·수탁 협약 체결과 사업비 납부, 영업손실보전금 납부를 위한 담보(지급보증보험증권)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수인선 학익역 신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행정지원 역할에 만전을 기해 용현·학익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수인선 학익역(가칭) 신설사업 위치도

수인선 학익역(가칭) 신설사업 위치도

